
2018 해외 MICE 박람회 · 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 사업 참가자 결과보고서

□ 참가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PCMA Convening Leaders 2019
- 기간: 2019. 1. 6(일) ~ 1. 9(수)
- 장소: David L. Lawrence Convention Center, 미국 피츠버그
- 참가자: 이오컨벡스 오성환 대표이사, 채널케이 박한범 대리, ICC JEJU 김연신 과장

□ 참가목적

- 미국 및 국제 컨벤션 업계 동향(트렌드) 관련 정보교류
- 최신 컨벤션 기법(Technology & Planning) 학습
-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PCMA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
- MICE산업의 新 글로벌 트렌드 및 사례 공부
- MICE업계 관계자들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 주요활동 및 이슈

- 참석인원: 4,000 - 5,000명
- 주요 참석 국가: 95% 미국 / 5% 기타
- BrianDate라는 새로운 개념의 PSA 미팅 Launching.
- 강연별 요약물 실시간으로 아티스트(화가)가 이미지/텍스트로 그려내는 방식 사용.
- 주요 이슈: Be the leader, not the follower.
- APAC Chapter Reception (Westin, Fayette, Jan. 6 16:30~18:00)
 - PCMA의 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의 교류를 위한 사전 네트워킹으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약 50 여명의 아시아지역 참가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 David L. Lawrence Convention Center 전경

○ Opening Reception (David L. Lawrence Convention Centre Hall A)

- 약 8000평방미터의 공간에 다섯 군데로 마련된 Food Table과 여러 형태로 나누어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참가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담소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음. 중간중간에 로봇이나 코스프레 등으로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려는 노력도 보였으며 자원봉사자들로 보이는 다수의 진행요원들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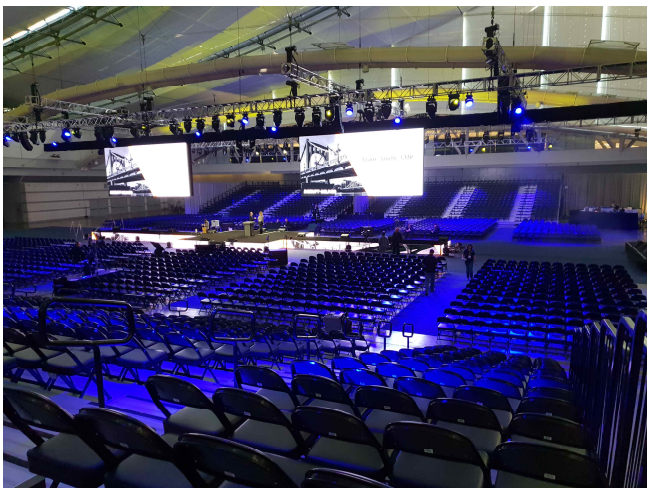
△ Opening 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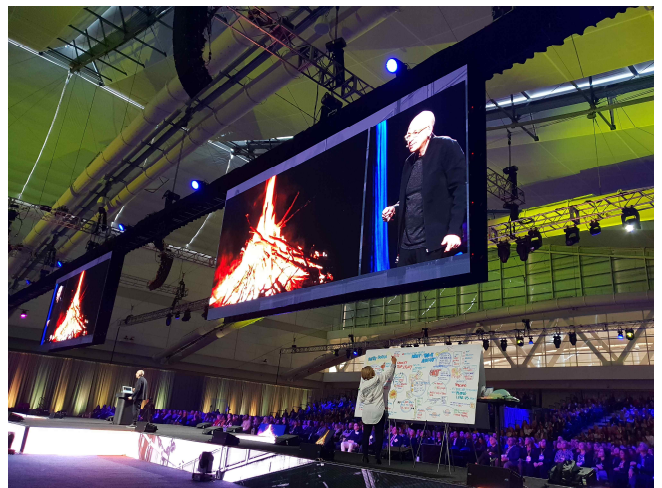
△ Opening Reception

○ Opening Plenary1 at Main Stage (David Centre, Hall B, Jan. 7 09:00~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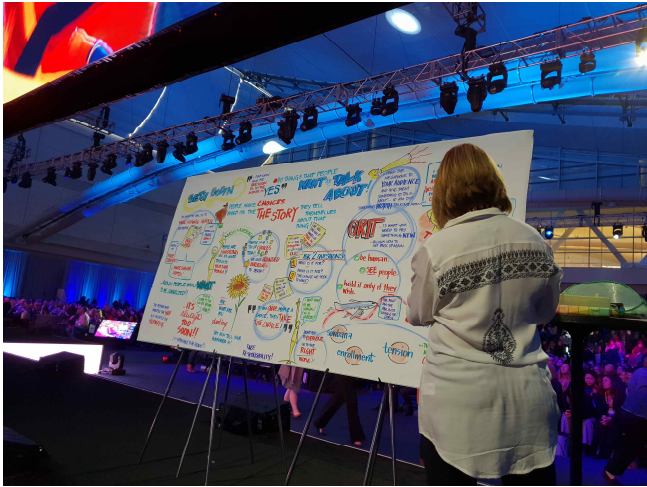
- PCMA회장의 개막 인사로 시작되어 경과보고와 후원사 소개에 이어 마케팅의 대가인 Seth Godin의 기조강연이 이루어짐. 무대 한쪽에서 강연내용을 캘리그라픽으로 요약하는 이벤트가 흥미로움.(Main Stage에서 진행되는 모든강연을 정리하여 로비에 전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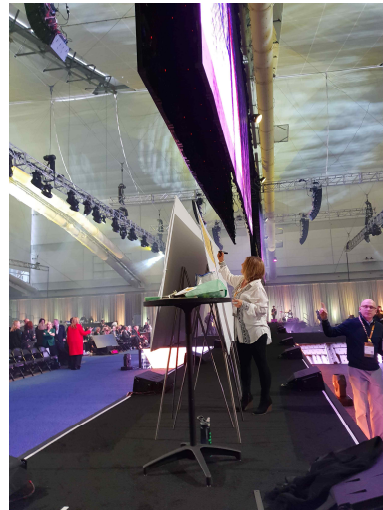
△ Main Stage (양쪽 분할 4,000석)



△ Opening Keynote at Main Stage



△ 실시간 요약 정리하는 캘리그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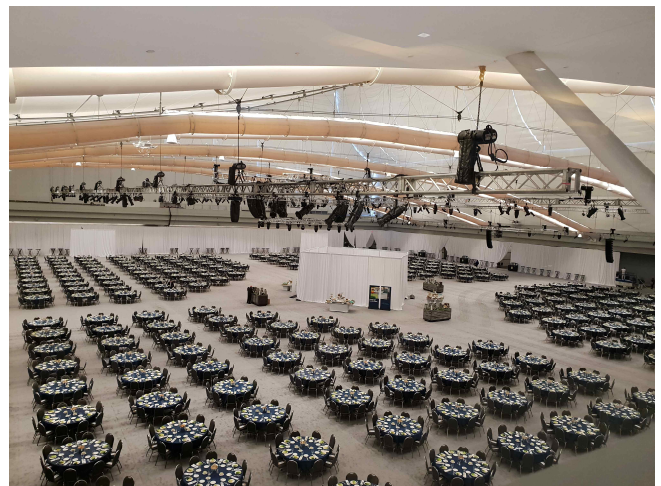
△ 캘리그래퍼(Plenary Session)

○ Networking Luncheon (David Centre, Hall A, Jan.7,8 12:30~14:00) & Networking Breakfast (David Centre, Hall Lobby)

- 개막 당일(월)과 다음날(화), 4000석의 라운드테이블(400개)로 준비한 오찬의 컨셉은 “Networking”으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인사하면서 서먹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 이야기거리(Q Card)까지 각 테이블에 준비해 두는 세심함이 인상적임.
- 음식도 절채와 디저트는 미리 테이블위에 준비하고 메인만 서빙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네트워킹 분위기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보임.
- 행사기간 내내 오전 8시부터 전시홀 로비공간에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면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또한 각 후원기업과 참가기관들의 홍보부스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기획됨.



△ Networking Breakfast



△ Networking Luncheon (4,000석)

○ Breakout Sessions (David Centre, 3rd & 4th Floor Small & Medium sized Meeting Rooms)

- 전체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분과세션에서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Innovation, Technology 관련 세션에 참여.

- 컨벤션센터 3,4층 분과회의장 로비등을 이용하여 음식(간식)과 음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또한 VR체험이나 지역 홍보관들을 배치하고 또한 참가자들의 피곤함을 풀어주기 위한 Massage spot도 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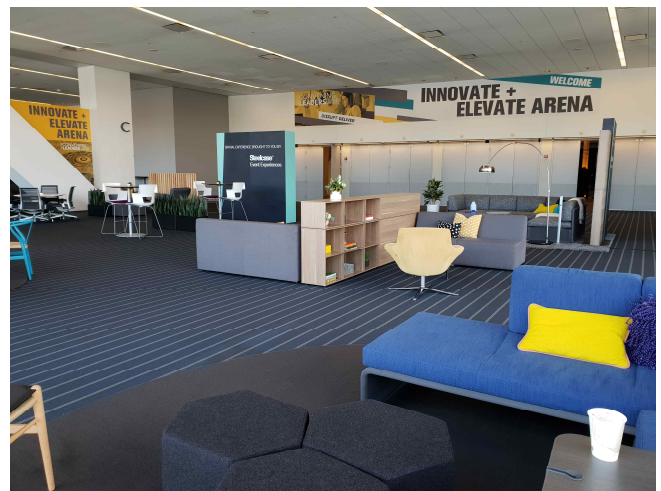


△ 분과세션장 로비에 마련된 마사지 코너

○ BRAINDATE For Knowledge Sharing & Networking 이라는 타이틀로 Main Stage가 있는 B홀과 C홀 로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의자와 테이블을 준비하고 사전 혹은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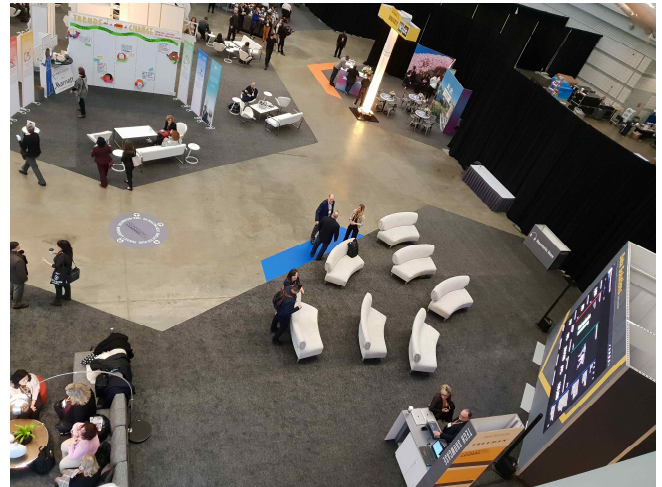
△ BRAINDATE 공간 (로비)



△ BRAINDATE 공간 (로비)



△ 소통 및 정보공유 공간 (전시홀C)



△ 소통 및 정보공유 공간 (전시홀C)

○ Plenary Session 2 &3 at Main Stage (David Centre, Hall B, Jan. 7 09:00~10:30 & 15:00~16:00)

- 동기부여 목적의 Pemberton의 강연과 여성평등을 주제로 한 Okamoto의 강연, 그리고 오후에는 ‘세기의 성대결’로 유명한 Billie Jean King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약 4000여 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음.

○ Global Reception (Invite only) at Westin, Westmoreland Ballroom)

- 한국관광공사(KTO)가 후원하는 리셉션이라고 하여 사전에 초청도 받지 못했으나 참가함. 주로 싱가포르나 미국 이외 지역(인도, 캐나다 등)에서 온 1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음료와 다과를 먹으며 네트워크하는 모임으로 한국의 컨벤션 시설과 업계를 홍보하기 위해 후원을 했을텐데 정작 한국관광공사에서 참가한 직원들(2인)을 행사 마지막 날에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해외 시장정보 습득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참가한 국내의 참가자들을 주무 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등한시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음.



△ Global Reception



△ Global 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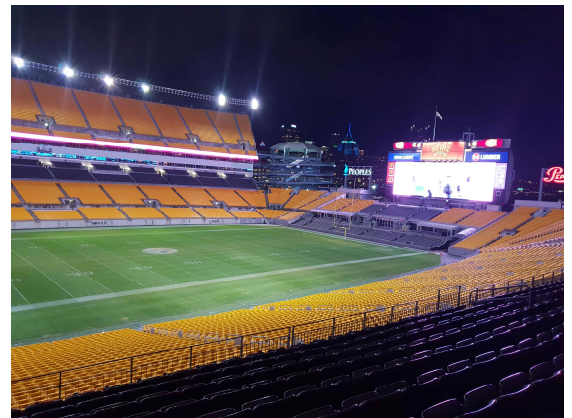
△ Global Reception (싱가포르 참가자)



△ Global Reception (인도 참가자)

○ Networking Reception at Heinz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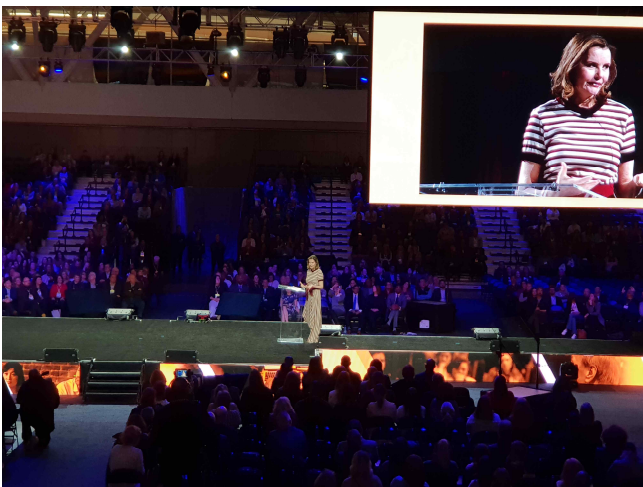
- 미식축구경기장인 하인즈필드에서 개최된 Farewell 성격의 만찬행사로 경기장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음식과 함께 밴드 음악을 통해 참가자들이 댄스도 하고 담소할 수 있는 캐주얼한 분위기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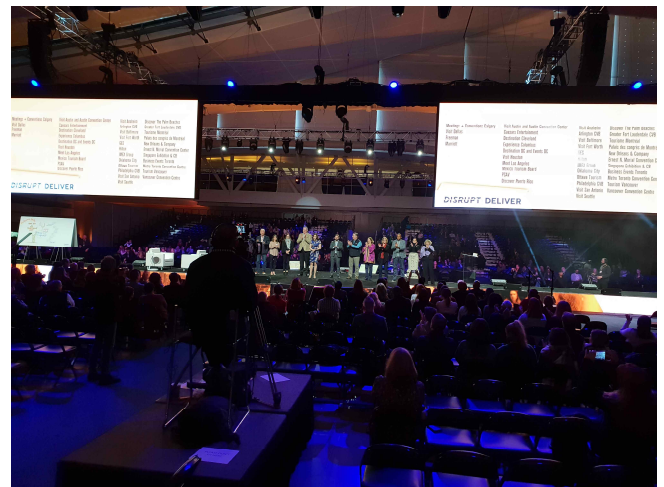
△ Networking Reception at Heinz Field

○ Closing Plenary4 at Main Stage (David Centre, Hall B, Jan. 9 10:30~12:00)

- Gender Inequality를 주제로 한 영화배우 Geena Davis의 강연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PCMA직원들이 무대에 올라가 인사를 하면서 전체행사를 마무리됨.



△ Closing Plenary (Geena Davis 강연)



△ Closing Plenary (PCMA 직원들 인사)

○ 지역 및 관계자 네트워킹을 고려한 16개 챗터로 나누어 리셉션 진행

: PCMA 협회 챗터를 비롯, 북미/남미/유럽/아태지역/학생 등 지역과 참가자 카테고리 16개로 나누어 보다 세밀한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리셉션을 개최함

* 한국인 참가자의 경우 APAC(아태) 챗터 리셉션에 초청되었음.

○ Braindate for Knowledge Sharing & Networking

: 논의하고 싶은 주제별로 참가자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PCMA 애플리케이션 상에 주제를 공유하면, 참가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골라 신청, 2인 이상 그룹이 결성되면 시간, 장소를 정한 뒤 자유롭게 정보공유와 토론을 나누는 형태.

○ Main Stage(기조강연)를 비롯, 다양한 공간에서 후원기관을 고려한 지속적인 마케팅 노출

: PCMA에 참여한 후원기관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기조강연 사이의 광고 노출, 휴식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체험요소(인공지능 알렉사, 인형뽑기 기계, 커피 제공부스 등)에도 각 후원사의 명칭이 노출되어 있음. 분과세션장 역시 섹션을 나누어 지역별 관광공사/관광청 등 후원기관들이 홍보부스, 기념품 및 커피/다과 등 음식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음.

○ Session Illustration Performance

: 세션별 내용을 요약하여 넓은 화이트보드에 실시간 일러스트를 그리는 퍼포먼스가 기조강연 뿐 아니라 모든 분과세션에서 진행되어 세션 내용과 함께 그려지는 일러스트를 감상하는 재미요소가 가미됨.

○ After Chat 프로그램

: 세션이 끝난 후 강연자와 참가자, 혹은 참가자들 간 자유롭게 주제에 대하여 Q&A와 토론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 마련됨.

□ 실무적용 가능 아이디어 혹은 추후 사업계획 반영할 내용

○ 참가자들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시켰다는 인상을 받음. 예를 들어, 중앙 무대, 네트워킹 조찬, 오찬 및 만찬 시에 여러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여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함.(APMBC 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 및 행사정보를 제공하여 종이 없는 컨벤션(PaperlessConvention)을 진행하였다고 평가됨. 또한 로봇이나 모니터를 활용한 안내(Information Desk)기능이 흥미로움.

- 스폰서를 파트너로 인식 : 후원기관의 단순 광고 노출이 아닌 기관이 주최하는 이벤트 및 세션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홍보함으로써, 주최기관과 후원사 간의 윈윈 뿐 아니라 참가자 만족도 역시 제고.
- 콘텐츠의 연계 및 융복합 : 마케팅 전문가, 협력사(기자재, 제작물 등 Suppliers), 컨벤션뷰로 및 관광업계(호텔, 여행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다방면의 강연자, 후원기관들을 연계하여 섭외, 행사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 개인 간 네트워크 확대 :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애플리케이션) 상에서도 주제별 1:1 혹은 다수 토론을 통해 의견 교류 및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행사 App 개발
- 감성 커뮤니케이션 : 리셉션에 초대된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메시지가 담긴 손편지를 전달함으로써 참가자로 하여금 행사를 보다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감성을 자극.
- 보다 적극적인 Global Network 구축
- 최신 IT 기기 사용을 통한 행사 편의성 극대화

□ 총평 및 시사점 (전반적인 프로그램 참가 총평)

- 약 5년 만에 참가하게 된 PCMA Convening Leaders행사는 기획과 운영, 제공되는 콘텐츠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컨벤션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며 국내 컨벤션 업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배울 점이 있으나, 국내 참가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시간과 비용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좀더 많은 분들이 PCMA CL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 다양한 참가자를 고려한 맞춤 콘텐츠 개발 : MICE 관련 다양한 업계의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기초강연과 보다 심화된 주제별 분과세션이 다양하게 개최되었음.
- 컨벤션 개최지 마케팅의 차별화 : 개최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VisitPittsburgh” (The official tourism promotion agency, 피츠버그 공식 관광진흥기관)에서 피츠버그공항, 다운타운, 관광지 등 각지에 PCMA 배너 게재, 도시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세션 개최, 지역 출신 유명인을 연자로 섭외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해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및 경제적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율과 질서가 공존하는 메가컨벤션 : 다양한 형태의 세션, 워크샵, 네트워

킹으로 4천여명의 참가자들이 행사장 내 곳곳에 분산되어 자유롭게 운영되는 동시에,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를 효율적 배치 및 운영, 사인물 안내,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공지푸시 등으로 질서정연한 운영이 가능하였음.

- 교육이 주요 목적이었던 이번 행사는 강연자를 통한 교육 내용 전달 보다 는 Touch+Feel & Bond 가 주 테마 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교류하고 서로 교감 (Emotional Bond)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행사장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예: 연속 사용 가능한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서로 도와가며 인형을 뽑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동하고 또한 결과물을 놓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에서 웃고 놀던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인형 뽑기 기계이지만, 함께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 기계가 참석자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